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열린 민족주의와 보편주의로의 지평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
keongil@ask.ac.kr

- I. 안중근 연구의 현상과 과제
- II. 안중근 민족주의의 성격과 의의
- III. 동아시아와 아시아주의
- IV.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 V. 맺음말: 열린 민족주의와 보편주의를 향하여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대련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등의 공동주최로 2009년 10월 25-26일 대련대학교에서 개최된 안중근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I. 안중근 연구의 현상과 과제

한국에서 민족주의를 말하는 경우 안중근은 빼놓을 수 없는 일정한 인상과 분위기(aura)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영웅으로 성화된 충무공 이순신이나, 민족주의의 화신으로 자리 잡은 백범 김구와는 다른 어떤 것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이다. 근대 국가 체제가 민족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를 성화(聖化)하고 국가적 신념체계를 만들어내며 국가력을 제정한다거나 민족적 의례나 성인, 성소(聖所) 등을 지정하는 양상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비록 규모의 범위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순신이나 김구, 안중근의 기념관이나 기념 동상을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족정체성의 창출 과정만이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소비’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안중근’이라는 글자와 함께, 잘 알려진 약지가 없는 손바닥 낙관이 찍힌 그림이나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혹은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이라는 글귀는 티셔츠나 스티커, 캐릭터의 문구 혹은 책갈피로서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체 게바라의 티셔츠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대중 소비는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그의 ‘의거’와 나아가서는 민족주의에 연상되는 장중하고 비장한 분위기를 가벼운 포스트모던 방식으로 반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마치 월드컵이나 한일 간의 스포츠 경기에서 그러했듯이 이로써 민족주의는 희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은밀하고 잠재적인 형태로 재생되고 ‘소비’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안중근 아이콘의 정수는 1909년 하얼빈 역에서 그가 주도한 ‘사건’이었다. 안중근과 관련하여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출간된 책들의 표제인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하얼빈 역의 보복』에서 보듯이 그가 하얼빈 의거를 중심으로 기억되고 회상되는 것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엄한 민족 교향시”,¹⁾ 혹은 “한민족의 독립 의지와 기상을 천하에 떨쳤다”²⁾는 표현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이는 것이다.

1) 이기웅 편,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열화당, 2000), 1쪽.

김삼웅은 “흔히 이 부분만을 기억”하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안중근에 대한 기억이 “국채보상운동, 교육사업, 의병전쟁, 단지동맹, 공판투쟁, 『동양평화론』 저술”과 같이 “만대를 두고 기려야 할 겨레의 표상”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³⁾

안중근에 대한 이러한 기억의 확장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들을 반영한다. 돌이켜보면 안중근의 명성이나 비중과는 대조적으로 그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그가 옥중에서 작성했다는 「안응칠역사」와 「동양평화론」 자체가 전해지지 않다가 1978년 「안응칠역사」에 이어 1979년에는 「동양평화론」이 발굴됨으로써 그가 죽은 지 70년을 전후하여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가 비로소 갖추어지면서 학계의 안중근 연구가 본격화되었다.⁴⁾ 특히 1990년대 이후 국가보훈처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같은 국가 기관들에서 자료집과 전집의 간행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많은 단행본과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연구들도 번역, 소개되었다. 안중근연구회가 조직되어 활동하는 등 안중근에 대한 연구가 한국 다음으로는 가장 활발한 일본에서는 일찍이 1984년에 나카노 토무(中野泰雄)가 쓴 『日韓關係の原像』(東京: 亞紀書房)이 『동양평화의 사도 안중근』(양역관 역, 하소, 1995)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으며,⁵⁾ 10년 후인 1994년에는 여순형무소의 간수 치마 도히치(千葉十七)가 묻혀 있는 다이린지(大林寺)의 주지인 사이토 타이켄(齊藤泰彦)이 소설 형식의 단행본을 발표하였다(『わが心の安重根』, 東京: 五月書房, 이송은 역, 『내 마음의 안중근』, 집사재, 2002). 2003년에는 사키 류조(佐木隆三)가 쓴 『伊藤博文と安重根』(東京: 文藝春秋, 1996)이 번역, 소개되었다(이성범 옮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제이앤씨).

러시아에서는 1999년 박 보리스(Pak, B. D)가 쓴 『하얼빈 역의 보복:

2) 김삼웅, 『안중근 평전』(시대의 창, 2009), 8쪽.

3) 위의 책, 같은 곳.

4) 1979년 9월 제일동포 김정명 교수가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연구실 ‘七條清美關係文書’ 중에서 「안응칠역사」와 「동양평화론」의 등사본을 합쳐한 『安重根傳記及論說』을 발굴하였다. 동양평화론 등 안중근 관련 사료의 발견 과정에 대해서는 市川正明, 『安重根と朝鮮獨立運動の源流』(東京: 原書房, 2005), 13-17쪽 참조.

5) 나카노는 도조 내각의 탄압에 저항하다가 1944년 1월 자결한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의 아들이다. 나카노 토무, 『동양평화의 사도 안중근』(하소, 1995), 223-224쪽.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안중근의 충성』을 2009년에 한국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편집, 소개하였다(Пак Б. Д. (Борис Дмитриевич), Возмездие на харбинском вокзале: Документаль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신운용·이병조 역, 채륜). 이 책의 서문에 수록된 「소개의 글」에서 유리 바닌은 러시아에서 간행된 한국에 관한 역사책들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왔다고는 하더라도 러시아의 한국학 학자들은 “안중근의 영웅적인 행적과 한국인의 민족해방투쟁사 속의 그의 위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책이 “특별히 이 주제에만 국한되어 집필”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⁶⁾ 그리하여 마치 한국에서 안중근에 대한 주류적 서술과 비슷하게 안중근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자신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훌륭한 헌신적인 본보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

이처럼 안중근에 대한 최근 연구의 동향은 국내에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연구들이 소개되면서 연구의 폭이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국제적 시각에서의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일본에 대한 항쟁이라는 시각에서 안중근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안중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의미 있는 편향들을 야기하였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 글에서는 민족주의와 동아시아의 두 가지 개념에 주목하였다. 일국사의 관점에서 항일에 의거한 안중근의 이해는 그의 민족주의 개념에 일정한 편향과 왜곡을 초래했으며, 이는 다시 그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일본 천황에 대한 그의 입장은 무시되거나 거론되지 않으며, 이는 일본의 대륙침략을 뒷받침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아시아주의나 인종주의로 확장된다. 그러가 하면 동양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그 자신이 고안해 낸 유일무이한 것으로 찬양되기도 한다. 이처럼 동양평화론은 가장된 무관심과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자신에 대한 과장과 배타를 통한 전유, 그리고 때때로의 전도를 통한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 윤색되고

6) 박 보리스, 신운용, 이병조 역, 『하얼빈 역의 보복 -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안중근의 충성』(채륜, 2009), 23쪽.

7) 위의 책, 18쪽.

왜곡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져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안중근의 민족주의와 동양평화론을 일국사의 틀에서 이해해 온 학계의 편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안중근이 쓴 텍스트와 기존 연구들에 대한 징후적 해독(symptomatic reading)을 통하여 그에 대해 형성되어 온 기존의 이해를 해체하는 한편, 이 두 주제에 관한 안중근 자신의 생각과 비전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안중근 민족주의의 성격과 의의

안중근의 의거는 한국에서 민족주의적 동기에 의해 주로 이해되고 조명되어 왔다. 그는 한국 내에서 일본과의 강제 병합을 추진한 주동자를 처단한 민족의 영웅으로서 추앙받아 온 반면, 국외에서는 편협한 인종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징표로서, 혹은 몰락해 가는 무능한 국가의 국민이 절망적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테러리스트로 폄하되기도 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이러한 사실들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저항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록 명시화된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근대 한국 민족주의의 프리즘을 통해 구축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안중근의 민족주의가 아닌 안중근 자신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홉스봄(E. J. Hobsbawm)이 말한 대로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민족의 개념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invented) 것이라 하더라도 종족(ethnic)과 민족이 일치하는 한국의 경우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일 수 있었다. 후진국 민족주의의 일반적 특성으로 흔히 지적되어 온 바로서의, 외부의 충격이나 침략에 대항하여 형성된 저항 민족주의의 속성들을 안중근에게서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⁸⁾

8) 나카노는 안중근의 민족의식이 촉발된 계기로서 안중근의 신앙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민중이 글을 잘 몰라서 천주교를 포교하는 데에 지장이 많으므로 서양의 수사회에 요청하여 교수를 초빙하고 대학을 설립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아가서 심지어는 절망이나 ‘폭력’, 혹은 ‘테러’와 연관되는 공격적 성향의 극단적 민족주의의 일정한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원초적 민족주의의 원형들을 안중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안중근의 사후 형성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래된 바로서의 폐쇄적 민족주의 상은 안중근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안중근의 이미지와 민족주의의 결합에는 타자로서 일본의 그림자가 있었다. 안중근의 재판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이고 있다. 하얼빈 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강제병합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의 표시로 읽히지 않도록 일본이 고심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러시아의 자료에 의거하여 박 보리스는 예심이 시작되기 직전 일본 법정은 한국어를 아는 몇몇 일본인을 감옥에 보내, 안중근에게 이토를 죽인 것이 “한국의 적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즉시 석방시켜 줄 것이라고 회유하였다는 일화를 전하고 있다.⁹⁾

안중근 자신도 사적인 의도와 동기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검찰의 심문에 대하여 “나는 한국을 위해,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 이토를 죽인 것이지, 명예를 위해 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¹⁰⁾ 이러한 양상은 공판 과정에서 되풀이되었다. 1910년 2월 10일 오전 9시 반에 시작한 제4회 공판에서 검찰관이 행한 구형의 논고는 안중근이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면서도 석탄업 등의 사업 실패로 인한 사적인 원인으로 사건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심문과 공판 과정에서 안중근이 강조한 정치적 주장은 모두 무시하여 버렸다. 이에 대해 안중근은 “나는 원래

안중근은 서양인 홍신부로부터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서울의 민주교에게 이를 건의하였다.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분개하여 “천주교의 교리는 진리임에 틀림없지만 외국인은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여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을 중단한다. 그 이유를 묻는 친구들에게 그는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은 일본의 노예가 되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영국의 노예가 된다. 내가 만일 프랑스어를 배우게 되면 프랑스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고 답하면서, “만일 우리 한국의 국위가 세계에 그 위세를 떨치게 되면,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나카노, 앞의 책, 122-123쪽. 이 일화는 가톨릭의 ‘보편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교사와 조우하면서 좌절을 경험한 그의 민족주의가 국가로 회귀하는 과정을 잘 보이고 있다.

9) 박 보리스, 앞의 책, 106쪽.

10) 1909년 11월 16일 관동도독부 감옥에서 검찰관 미조부치 타카오(溝淵孝雄)에 의한 제4회 심문조서. 이기웅 편, 앞의 책, 85쪽.

이토라는 인물을 모른다. 만일 내가 이토에게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관도 나에게 사적인 원한으로 이런 구형을 내리고 있던 말인가. 만일 검찰관의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공법도 공적인 일도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모든 일은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응수하였다.¹¹⁾ 이어진 변호사의 변론 이후 최후진술에서도 안중근은 심문 자체가 불충분했음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차원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공적인 동기를 강조하였다.¹²⁾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얼빈 역에서의 사건과 이후의 재판 과정은 사적인 원한이나功名심과 같은 개인적 동기를 강조하고자 한 일본의 태도와 이에 맞서 한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로 요약되는 공공의 대의를 강조하는 안중근의 입장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안중근의 인격에 감화를 받은 몇몇 일본인들의 이야기와 그의 동양평화론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전자는 일본의 교과서나 주류 언론의 안중근에 대한 이미지로 전승, 고착화되었으며, 후자 역시 민족주의의 동원이라는 전후 남한 사회의 필요에서 일면화되고 경직되어 가는 과정을 밟았다. 만일 우리가 그의 민족주의에 부착된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을 제거하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한국을 위해,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 열림을 지향하는 그의 민족주의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이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사형을 언도받은 직후에 안중근은 매우 분노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의 대의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안중근이 자신의 행위와 15년 전인 1895년 재한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군대를 지휘하여 궁중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을 비교하여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당연하게도 그는 미우라 등의 행위가 자신의 그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11) 나카노, 앞의 책, 64-65쪽.

12) 나카노, 위의 책, 68쪽. 최종 판결문은 이토의 살해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다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다소 물러선 입장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노가 논평한 바와 같이, “살해의 동기에 대해서는 사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함으로써 미조부치 검찰관의 논고를 부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치밀한 계획이나 철저한 준비를 지적하는 것 이외에 안중근이 주장한 공적인 대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웅 편, 앞의 책, 357쪽; 나카노, 위의 책, 74-75쪽.

결코 그보다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미우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석방하고 말았던 반면, 자신은 사형을 언도받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살해한 것과 비교하여 미우라의 죄와 나의 죄 중 어느 것이 무거운지 생각해 보면 머리가 터지고 속이 터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든”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나의 죄가 무언가. 내가 과연 무엇을 범했다는 말인가”를 반문하던 그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고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나는 과연 대죄인이다. 나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인(仁)이 부족한 것은 한국 국민된 죄이다”라고 생각하여, 의혹을 버리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¹³⁾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살해라는 보편의 지평에서 두 가지를 견주어보던 그는 어느 시점에선가 문득 한국과 일본이라는 차가운 국가의 장벽을 깨달았던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벽에 대한 새삼스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경직되고 폐쇄된 민족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와 민족의 벽을 초월하는 열린 민족주의의 자세를 그는 죽을 때까지 잃지 않았다. 1910년 2월 14일 사형 판결을 받고 다음 달인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40여 일 동안 안중근은 “비단과 종이를 들고 휘호를 의뢰”하는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리하여 여순 옥중에서 휘호한 그의 유묵은 200여 폭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실물 또는 사진본 등을 합하여 한·중·일에 60여 편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⁴⁾

오늘날 한국에서 잘 알려진 “국가안위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나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과 같은 휘호는 이러한 연유로 작성된 것이었다. 전자는 관동도독부의 야스오카 세이시로(安岡靜四郎) 검찰관이 서양을 다녀오면서 양말을 두 켤레 안중근에게 선물로 넣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적은 것이고,¹⁵⁾ 후자는 사형 당일날 형장으로 떠나기 직전에 여순감옥의 간수로서 일본 육군 상등병인 치바 도히치를 위해 적어준 것으로 그의 마지막 유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⁶⁾ 이들을 포함한

13) 나카노, 위의 책, 76쪽.

14) 박은식, 『한국통사』(상해: 대동편집국, 1915), 165쪽; 나카노, 위의 책, 227쪽;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경인문화사, 2009), 397쪽.

15) 나카노, 위의 책, 216쪽.

안중근의 25폭의 유묵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다.¹⁷⁾

이처럼 “높은 기개와 도덕, 그리고 애국적 사상”을 표현한 대표적 작품으로 거론되어 한국의 국가보물로 지정된 이 두 유품이 사실은 일본인 검찰관과 간수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에서 흔히 잊혀지거나 언급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안중근의 나라사랑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 해석은 그 의미 맥락에 대한 성찰을 불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휘호가 받는 상대방에게 교훈이나 격려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안중근이 일본인에게 일본 국가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국가를 위해 본분을 다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화신으로서의 안중근의 이미지를 치명적으로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안중근이 그것을 작성하게 된 동기에 대한 설명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한국의 최서면은 그것을 “자기가 의거한 이유를 두고두고 되새겨줄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일본인에게 써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¹⁸⁾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안중근이 “당사자에게 잘 맞는 어구를 골라 멋진 필체로” 써준 것으로 설명된다.¹⁹⁾ 치바 도히치에게 헌정한 ‘위국헌신’에 대해서는 비록 ‘적국’의 간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서로의 입장이 달라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자신의 임무에 마지막까지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시에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니 까요”라고 격려했다는 또 다른 설명이 있다.²⁰⁾

최서면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는 안중근이 자신의 의거에 대한 이유를 해명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남겨두고자 하는 동기에서 그것이 작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일종의 중의법을 통하여 자신의 심사를 새기고 그것을 후세에 전달하고자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민족주의의 이미지를 투영한 사후적 해석이라는 혐의를 버리기는

16) 나카노, 위의 책, 213쪽.

17) 윤병석, 앞의 글, 397쪽.

18) 최서면, 『새로 쓴 안중근 의사』(집문당, 1994), 171쪽.

19) 나카노, 앞의 책, 227쪽.

20) 사이토 다이켄, 이송은 역, 『내 마음의 안중근』(집사재, 2002), 30쪽.

힘들다. 당시의 상황이나 안중근의 인격으로 미루어보아, 이들 유묵은 당사자에게 가장 어울리면서 또 그에게 절실한 내용을 적어주고 싶었던 그의 본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처럼 안중근의 유묵을 둘러싼 의미의 탈맥락화와 그에 대한 성찰적 논의는 그가 마지막 생명을 놓는 시점에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열린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 위의 민비 시해 사건과의 비교에서 보듯이 국가와 민족의 벽을 실감하면서도, 안중근 자신은 이처럼 그 벽을 간단히 넘어버렸던 것이다.

III. 동아시아와 아시아주의

하얼빈에서의 거사 이후 안중근은 법정에서 자신이 이토를 처단한 이유들을 밝히고 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 죄”, 혹은 “한국의 독립과 동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밝힌 후 모든 열강들을 기만한 죄”와 같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관련된 대목이다.²¹⁾ 일본이 동양평화를 위해 한국을 ‘보호’한다고 세계 각국에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검찰관의 심문에 대해서도 안중근은 한 마을에 사는 삼형제의 비유를 들어 한중일 삼국의 경우를 말하면서, “이 세 가족은 형제라는 것은 분명하므로 현재 동양 각국이 모두 손잡고 힘을 같이 하면 인구가 5억은 되니 어떤 나라도 당해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²²⁾

이처럼 동양평화는 한국의 독립과 함께 안중근 사상 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두 가지 중 하나였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이미 살펴본 그의 민족주의에 대한 왜곡된 상을 배경으로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협소하고 일면적인 시각에서 해석되어 왔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극복되어 가고 있기는 하더라도 동양평화론의 대상 자체가 동아시아라는

21)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에 따라 약간의 상이가 있다. 러시아 신문 《달료카야 오크라이나》 1909년 11월 20일자는 안중근이 예심에서 이토를 처단한 이유로서 13개 조항을 거론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중에서 동양평화와 관련된 것은 마지막의 두 조항이다. 검찰 심문 조서에서 그가 밝힌 이유는 15개 항목이지만, 동양과 관련한 내용은 두 개 정도로 변함이 없다. 판결 이후 옥중에서 그는 이를 다듬어서 『안용칠역사』에 정리하였다. 나카노, 앞의 책, 19-22쪽; 이기웅 편, 앞의 책, 34쪽; 박 보리스, 앞의 책, 104-105쪽.

22) 1909년 11월 24일 관동도독부 감옥에서의 제6회 심문조서. 이기웅 편, 위의 책, 115-117쪽.

지역²³⁾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틀에서 그것을 이해해 온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로서, 이러한 점에서 그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동아시아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²⁴⁾ 이하에서는 안중근의 열린 민족주의는 그의 동아시아 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는 전체 아래, 그의 동양평화론의 성격과 지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 아시아주의와 동양평화 일반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사회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그의 동양평화론은 동아시아와 관련된 이 시기 지적 자원들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동양평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개념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유사 개념들로는 동양주의(아시아주의), 아시아연대론, 삼국공영론 등을 들 수 있다.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단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주장”으로 정의되는 아시아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근대 이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서부터

23) 이 시기 아시아 연대의 주류가 한중일의 삼국을 준거로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안중근이 말하는 (동)아시아는 이에 더하여 타이와 미얀마 등의 동남 아시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달랐다. “동양이란 어디를 말하느냐”는 검찰의 심문에 대하여 그는 “중국, 일본, 한국, 타이, 비마 등”을 포함한 아시아주의를 말한다 고 답변하였다. 이기웅 편, 위의 책, 114-115쪽 참조. 신운용은 이 시기 삼국동맹론자들이 동양 삼국만을 고려한 것과 대조적으로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의 대상을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한 점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민에 대한 그의 인식 확대와 연결시키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남아시아까지 동양평화론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인과 같은 인권이 동남아인에게도 있음을 인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연구와 실천을 위한 방안」,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경인문화사, 2009), 506-507쪽. 현광호도 안중근에게 동양의 범주는 한중일 등 동북아와 타이,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도 포함하는 아시아주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장지연이 아시아 전체를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몽고인종에 속하는 한중일의 연합은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이나, 혹은 일본의 국수단체인 흑룡회가 한일합방을 기초로 만주, 몽고를 범주로 하는 대아시아 연방을 구상한 것과도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광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제46권 3호, 2003, 179쪽. 그러나 일본에서도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경우에서와 같이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대아시아주의의 흐름이 메이지 시기부터 있었으며, 이 시기 한국과 중국이 일본발 아시아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24) 강동국은 연구자 자신이 명확한 동아시아적 관점에 서서 동양평화론에 접근한 연구물 거의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써 한국의 지식계가 동아시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기가 1990년대 이후라는 사실과 아울러 한국 학계에서 한국사와 동아시아론이 서로 다른 담론의 장에서 병존하고 있는 현실의 두 가지를 지적한다. 강동국,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경인문화사, 2009), 400-401쪽 참조.

1910년대 무렵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²⁵⁾ 타자로서 서양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동일성에 대한 아시아 상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주의는 18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성립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²⁶⁾ 아시아연대에 대해서는 조선침략론을 집대성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동문인 카츠 카이슈우(勝海舟)가 1863년에 아시아 연대론이란 명분 아래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침략주의를 거론하고 이후 1873년의 정한론으로 이어졌는데, 1881년 농촌에 기반을 둔 자유당이 결성된 것을 계기로, 그와는 다른 아시아 연대론이 출현하였다는 설명이 있다.²⁷⁾

삼국공영론은 연구자에 따라 삼국동맹론,²⁸⁾ 삼국제휴론²⁹⁾ 등으로 불리는데, 김민환은 삼국공영론이 계몽주의 시대 민족지가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대외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밑바탕에는 막부 말기부터 일본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한론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김옥균, 중국의 Kangyuei(康有爲), 손얏센(孫逸仙), 인도의 스브하스 찬드라 보스, 필리핀의 에밀리오 아기날도 등을 통해 각국으로 수출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처럼 김옥균 등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거나 혹은 중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수입되어 주로 신지식계층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³⁰⁾ 김민환은 이 이론이 계몽주의 시대 한국의 지식인들에 의해 자체 생산된 것이라기보다는³¹⁾ 동양지배의 당위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본이 동양 각국에 수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25) 김경일·강창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8호, 2000, 270-271쪽.

26) 함동주, 「명치기 아시아주의의 '아시아상」, 『일본역사연구』 제5집, 1997, 75쪽, 80쪽.

27) 박영재, 「근대 일본의 한국 인식」, 역사학회 편, 『일본의 침략정책사 연구』(일조각, 1984), 95쪽, 100쪽.

28)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이등박문의 '극동평화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경인문화사, 2009).

29) 현광호, 앞의 글.

30) 김민환, 「동양3국공영론」,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나남, 1988), 64-68쪽.

31) 중국 연구자인 嚴安生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후일 공산당의 원로 혁명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우위장(吳玉章)을 비롯하여 이 시기 중국의 지식인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범아시아주의적인 사상과 감정이 자주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영향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중국 지식인의 일본 유학에 주목하여, 러시아가 맹방 독일의 자오저우만(膠州灣) 점령을 후원하고 있어서 1897년 12월에 뤼순항에 군함을 진주시켜 뤼순·다렌의 조차를 요구하기 시작한 직후에 일본 참모 본부의 주도 아래 중국인에 대한 친선 공작과 유학 권유가 시작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한다. 嚴安生, 『日本留學精神史 - 近代中國知識人の軌跡』(東京: 岩波書店, 1991) (엔안성 저, 한영혜 역,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 - 근대 중국 지식인의 일본 유학』(일조각, 2005), 157-159쪽).

되풀이하여 강조한다.³²⁾

김민환은 한국이 일본과 ‘보호조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의 침탈이 본격화하면서 친일적인 인사나 단체에 의해 삼국공영론이 동양주의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전의 동양(삼국)공영론이 각국의 자주권을 바탕으로 하되 일본의 주도하에 일종의 동맹 관계를 형성하여 서세에 대응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새로이 대두된 동양주의는 자주권 확립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일본의 지배 아래 서세를 막아 공영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일본의 아시아 점령에 동조하는 매관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노골화한 것이라는 것이다.³³⁾ 김민환이 말하는 1905년 무렵 삼국공영론이 변질된 형태로서의 동양주의는 그 내용에서는 신운용이 언급하고 있는 삼국동맹론과 비슷하다.³⁴⁾

신운용은 삼국동맹론에서 일제의 침략성이 드러나면서, 일제의 침략 논리에 대항하는 이론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것이 동양평화론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³⁵⁾ 즉 삼국동맹론이 발전한 형태로서의 동양평화론은 일진회 등 일부 부일세력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일제의 침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주적 논리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³⁶⁾ 그의 이러한 주장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환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일본이 중심이 되어 주장한 아시아 연대주의와 구조적 동일성을 가지면서도 반침략주의라는 대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윤경로의 입장과도 상통한다.³⁷⁾ 이외는 대조적으로 이광린은 이 시기 한국인들이 내세우는 동양평화론이

32) 따라서 그 이면에는 일본의 두 가지 독선적인 국가적 타산이 숨어 있었다고 본다. 즉 상하관계와 아울러 일본의 독립을 보존함을 전제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김민환, 앞의 글, 68쪽, 75-76쪽.

33) 김민환, 위의 글, 72쪽.

34) 1880년대에 삼국공영론이 한국에 수입된 것으로 본 김민환과는 대조적으로 신운용은 1904년의 러일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삼국공영론이 삼국동맹론으로 전환되었으며,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를 회의적 시각으로 보았다고 언급한다. 그는 삼국공영론과 삼국동맹론의 양자를 구분하여 전자가 문화, 정치, 경제의 측면에서 삼국의 발전을 추구한 반면, 후자는 군사 관계에 무게를 두어 동양의 보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았다.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이등박문의 ‘극동평화론’」, 앞의 글, 533쪽. 해석과 분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김민환과는 달리 신운용은 현상 중심의 서술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신운용, 위의 글, 536쪽.

36) 신운용, 위의 글, 536-537쪽.

37) 윤경로, 「사상이 안중근의 생애와 활동」,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역민사, 1992), 334-336쪽.

란 아시아연대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동양평화론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다.³⁸⁾

현광호는 삼국제휴론은 한국이 청일전쟁 이후 청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탈피하고 을미사변으로 악화됐던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현실적인 외교방안의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서구 열강의 침략, 특히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외교 방안이라고 보았다. 삼국제휴론은 중국에 대한 폄하와 일본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백인종에 대한 저항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³⁹⁾ 이처럼 삼국제휴론이 인종주의와 일본맹주론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주의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도 그는 삼국제휴론은 아시아 연대론과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보았다. 즉 삼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동맹을 맺어 서양의 침략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한 삼국제휴론과 대조적으로 아시아 연대론은 일본의 조선 병탄과 중국 침략을 추구한 대륙 침략론이라는 것이다.⁴⁰⁾ 삼국제휴론에 대한 그의 이러한 평가는 그것을 부정적, 회의적 맥락에서 해석한 김민환이나 신운용과 대조를 이룬다.

1870-1910년대 근대로의 이행기에 찾아볼 수 있는 아시아의 연대에 관한 이들 제안들에서 나타나는 혼란은 그 기원과 명칭에서부터 그것을 구성하는 실제 내용과 성격,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주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아시아주의나 동양평화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평가를 시도해 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단순히 일본에 의해 수출되어 동아시아 각 지역의 지식인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파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이 특정 국가나 지역, 예를 들면 조선의 맥락에서 적용되고 해석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지식인들의 능동적 수용 과정과 실천 양상이 부각될 수가 있다.

거시적 맥락에서 보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체성과 능동성에 대한 강조는 일정한 대가를 수반한 것이었다. 가장 큰 약점은 초기의 연구들에서 지적해 온 바로서의 일본으로부터의 규정성이 거의

38) 이광린, 「개화기 한국인의 아시아연대론」, 『한국사연구』 제61·62집(1988), 297-298쪽.

39) 현광호, 앞의 글, 171-172쪽.

40) 현광호, 위의 글, 174쪽.

잊혀져 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유학이나 공무 등을 통하여 일본과의 교류가 잦았던 지식인들의 경우에 그러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지식인 전반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른바 일본발 아시아주의⁴¹⁾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에 반응하고 화답하였다. 일찍이 아시아 연대에 공감하였던 김옥균은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제휴를 의미하는 삼화(三和)를 자신의 호로 삼았으며, 상해의 여관에 투숙할 때 자신의 이름을 이와다 미와(岩田三和)로 서명할 정도로 그 실현에 몰두하였다. 그의 삼화주의는 일제 말기 대동아공영권이 제창되던 시기에 동양주의와 대아시아주의의 선구로 추앙되었다.⁴²⁾ 이인직은 《만세보》 1906년 7월 20일자에 발표한 「삼진연방」이라는 논설을 통하여 일본과 간도, 만주를 포함하는 “동양의 일대 연방을 만들어 경제상 대진보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³⁾ 그런가 하면 안창호 역시 이토와의 회견에서 삼국의 정립친선이 동양 평화의 기초라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서양세력의 아시아 침입을 막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⁴⁾ 박은식은 인종론과 문명론에 근거하여 동아시아 삼국의 연대를 주장한 오오가키 다케오(大塚丈夫)가 1908년에 저술한 『靑年立志篇』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⁴⁵⁾ 러일전쟁 후

41) 여기에서는 동양주의, 아시아연대론, 삼국공영론, 삼국제휴론 등을 포괄하는 총칭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

42) 팔봉, 「대아세아주의와 김옥균 선생」, 『조광』 1941년 11월호, 66쪽. 강재언의 평가에서 보듯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김옥균의 삼화주의가 일본을 맹주로 한 동아시아 삼국의 문명화와 서양의 침략에 대한 대항을 주장한 후쿠자와의 일본맹주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의 연구에서 조계근은 이를 부정하면서 삼국이 강고한 화맹체제를 유지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침략을 방어하고 나아가 조선을 완전한 중립국으로 만들어 국체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한다. 조계근, 「한말 조선 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제휴 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 제37호(2000), 158-161쪽.

43) 이승원, 「전장의 시물라크르: 박영희의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9호(2007), 223쪽 참조. 1906년 《만세보》에 연재한 『혈의 누』에서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 간 구완서가 문명국 미국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이라고 하여 아시아 연대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인직, 『혈의 누(외)』(을유문화사, 1969), 74쪽.

44) 그러나 그는 안중근과 비슷하게 그 이전에 한국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혁신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지 말고 한국의 독립을 회복시킨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안도산 전』(삼중당, 1978), 55-57쪽.

45)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 이후 그는 여기에 심한 환멸을 느끼게 되어 그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이후 아시아와 황인종은 더 이상 그의 관심이 아니었으며 반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보호'국화가 추진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아시아 연대론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면서 아시아를 단위로 한 지역 연대의 구상이 외면을 받고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추구가 일정한 세력을 형성한 배경을 고려해 볼 때⁴⁶⁾ 민족주의 사학의 주창자로 잘 알려진 신채호조차도 1909년에 이르러서야 동양주의에 대한 비판을 발표⁴⁷⁾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었다.

IV.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미 지적했듯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본의 의도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아시아주의와 동양평화론의 영향으로부터 안중근만이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기대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중근의 동아시아 인식은 이러한 아시아주의 일반의 영향으로부터 야기된 시대적 한계와 아울러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양면성을 가진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장에서의 주장이 될 것이다.

먼저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아시아주의의 침략적 속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아울러 그 성격이 시기에 따라 변화해 간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1870-1910년대 아시아나 동아시아 삼국의 지식인들이 그 지향과 성격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기에 따라 변화해 온

연대라는 관점에 근거한 새로운 국제 감각을 갖게 되었다. 한기형, 「근대 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청춘』과 『개벽』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50집(2005), 169쪽 이하 참조.

46) 1905년의 을사늑약을 계기로 문명개화론자들 사이에서 분화가 일어나 대한매일신보 계열은 동양주의와 동양평화론을 비판하면서 국가주의를 제창한 반면, 황성신문 계열은 그것을 고수하면서 동양평화를 교란한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사례로서 신채호를 들 수 있겠지만, 백영서는, 후자의 경우로 안중근을 들고 있다. 백영서 2000: 149쪽. 이와는 달리 현광호는 황성신문 계열은 선실력양성 후독립, 대한매일신보 계열은 선독립론을 지지하면서, 전자는 무장투쟁 반대, 후자는 양자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안중근은 전자와는 동양평화론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후자와는 무장투쟁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중근은 사상사적으로 특이한 위치에 있으며, 나아가서 이는 이 시기 사상적 분화가 복잡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현광호 (2003), 188-189쪽.

47) 신채호,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8일 및 10일자,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문학과 지성사), 1997.

아시아주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뒤늦은 자각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안중근에게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서 제기된 안중근에 대한 비판은 국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안중근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1905년 러일전쟁 시기 일본 천황의 선전조치에 의하면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⁴⁸⁾ 이에 대하여 나카노는 청일전쟁에 대한 일본의 선전조치에는 ‘한국의 독립’을 개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에 대한 선전조치에는 한국의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보전’ 및 ‘한국의 존망’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르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사고는 일본 정계의 상층부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안중근은 조치의 용어를 선의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⁴⁹⁾

다음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포함하여 이 시기 아시아주의의 중심에는 인종주의와 일본맹주론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다. 전자는 황인종이라는 인종의 동질성에 기반을 두어 아시아인의 연대를 주장한 것이고, 후자는 동양의 나라들 중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아시아를 이끄는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메이지 이후 일본 아시아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었다.

거시적으로 보아 안중근도 이러한 아시아주의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동양평화론』에서 이 두 요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⁵⁰⁾ 동양평화론의 서문에서 그는 러일전쟁에서 “동해 가운데 조그만 섬나라인 일본”이 “강대국 러시아를 만주 대륙에서 한

48) 1910년 2월 9일 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제3회 공판의 시말서에서 안중근은 “일본 천황의 선전조치에 있는 것과 같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여 한·일·청 세 나라가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8,000만 이상의 국민이 서로 화합하여 점차 개화의 영역으로 진보하며, 나아가서는 유럽과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에 온 힘을 다하면 시민은 안도하여 비로소 선전조치에도 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기웅 편, 앞의 책, 283쪽.

49) 나카노, 앞의 책, 48-50쪽. 이는 신운용, 「안중근 의거의 사상적 배경」, 안중근의사기념 사회협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경인문화사, 2009), 273-275쪽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50) 한국의 독립을 최우선과제로 생각한 그는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그리고 일본의 문명개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일본을 맹주로 하는 삼국제휴론을 수용하였으며, 아울러 그는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약육강식의 원리를 수용하여 강자인 백인종이 약자인 황인종을 침략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현광호, 앞의 글, 176-177쪽.

주먹으로 때려눕힌 일을 찬양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이 한·청 양국의 우의와 양국인의 소망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다른 인종에게 망할지언정 차마 같은 인종에게 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니, 한청 양국인의 폐부에서 의론이 용솟음쳐서 상하 일체가 되어 스스로 백인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⁵¹⁾

필자는 아시아주의와 인종주의의 이러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동양평화론이라는 동일한 텍스트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것을 비판하거나 넘어서는 생각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그는 1898년 중국에서 무술개변(戊戌改變)과 의화단의 반란, 그리고 8개국 연합국의 천진 함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참화에 대하여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이고 동양의 일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장래 황인종과 백인종 사이의 분열 경쟁이 그치지 않을 징조를 나타낸 것”으로 깊은 우려와 탄식을 표명한다.⁵²⁾ 위에서 언급한 한·청 양국이 백인의 앞잡이가 된다는 구절에서 “같은 인종에게 욕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언급은 강한 인종주의 사고를 엿보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광호는 이어지는 후반부에 주목하여 일본이 한·청에 대한 침략을 계속한다면 두 나라는 서양과 맹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는 점에서, 안중근이 서구 열강을 협력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평가한다. 즉 배타적 인종주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에 대한 신뢰에서 서구 열강을 협력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안중근이 동서양의 평화공존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종의 예속과 배제를 추구한 서구적 인종주의자가 아니었으며, 반대로 인종 간의 대립적 관계만을 사고하는 삼국제후론적 의미의 인종주의자도 아니었다고 평가하였다.⁵³⁾ 비슷한 맥락에서 신운용은 안중근이 서양(러시아)의 침략세력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한 근본 원인은 인종문제라기보다는 동양 침략이라는 도덕성의 결여에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시대인식의 한계인 인종론을 극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⁵⁴⁾

이처럼 텍스트로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아시아주의와 인종주의

51) 안중근, 「동양평화론」,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문학사 지성사, 1997), 206-208쪽.

52) 안중근, 위의 글, 210쪽.

53) 현광호, 앞의 글, 182-184쪽.

54)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연구와 실천을 위한 방안」, 앞의 글, 507쪽.

의 편린들과 아울러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의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코 사실에 다가가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강동국 또한 이러한 이중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역사에서 서구의 충격을 배경으로 민족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제국주의가 대두된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 즉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와 결합하여 지역주의를 침략의 도구로 사용한 일본이나,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와 지역주의에 대항하거나 혹은 민족주의가 지역주의와 결합된 제국주의에 투항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안중근은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결합시키면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사상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등에서 비슷한 구조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신채호류의 민족주의와는 달리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유일하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가지는 일정한 한계들을 지적한다. 지역과 다른 지역·세계와의 관계 설정에서 닫힌 지역주의의 측면이나 혹은 인종론에 기반을 둔 다른 인종에 대한 무시와 대립의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⁵⁶⁾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한계가 안중근 자신의 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당시의 지적 세계에서 제공받은 지식과 정보라는 문헌학의 문제로 설명하고자 한다.⁵⁷⁾ 나아가서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두 가지의 계기로서 기독교라는 보편적 종교의 존재와 민중의 시각에서의 사고를 제시한다.⁵⁸⁾

동양평화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동양평화론』에서의 원론적인 논의와 아울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그가 아울러 제시한 사실도 주목을 받아왔다. 1910년 2월 14일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의 면담 기록인 「청취서」의 후반에 소개되어 있는 이 구상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여

55) 강동국, 앞의 글, 412쪽.

56) 강동국, 위의 글, 416-419쪽.

57) 강동국, 위의 글, 429쪽.

58) 천주교에 바탕을 둔 보편 종교의 가치를 매개로 동서양이나 인종의 구별을 뛰어넘을 수 있었으며, 민중 입장에서 사고는 국내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일본 민중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통하여 민족이라는 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강동국, 위의 글, 430-433쪽.

왔다.⁵⁹⁾ 여순 중립화론, 평화회의 기구의 구성, 세계정부와 국제평화군의 창설, 동아시아 공동 개발 은행의 설립과 공동 화폐의 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구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서 그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여 왔다.⁶⁰⁾ 이와 대조적으로 강동국은 안중근이 살았던 제국주의 시대와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양평화론의 구체적 정책이 오늘날의 현실에 맞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동양평화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여 오늘날의 현실에 그의 사상을 끼워맞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안중근의 구상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가 비록 크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⁶¹⁾

이 글에서는 동양평화에 대한 안중근의 구체적 방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마치 안중근에 고유한 제안으로 일방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동양평화에 관한 일련의 실천적 제안들을 안중근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지며, 나아가서 이는 안중근의 민족주의에 대한 왜곡과 연동하여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신화 창출에 기여한다.

여기서 필자는 동양평화에 관한 안중근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그

59) 「청취서」의 한글 번역본은 국가보훈처·광복회, 「청취서」, 『21세기와 동양평화론』 (1996), 51-57쪽에 소개되어 있다. 그에 관한 논의로는 현광호, 앞의 글, 178-180쪽; 윤병석, 앞의 글, 393쪽; 김삼웅, 앞의 책, 350-352쪽; 강동국, 위의 글, 402-403쪽;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연구와 실천을 위한 방안」, 앞의 글, 503-505쪽 등이 있다.

60) 예를 들면 김삼웅은 안중근의 이러한 제안들은 “유럽공동체와 같은 기구를 100년 전에 구상한 것”이라고 하여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김삼웅, 위의 책, 8쪽. 안중근의 구체적 제안들에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영호를 들 수 있다. 안중근의 여순 중립화론을 한반도의 중립적 조정국가론으로, 삼국 평화회의론을 동북아 평화회의 6자회담으로, 개발은행과 공동화폐론을 동북아 개발은행과 아시아판 유로머니의 창설 등으로 연결시키면서 그는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동북아판 신마셜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역사적 자원으로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그랜드 디자인을 제안한다. 김영호, 「동북아 중심국가론의 기대와 우려 -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판 신마셜 플랜을 축구하며」, 『시민과 세계』 제3호(참여사회연구소, 2003), 271-273쪽; 김삼웅, 위의 책, 332-333쪽 참조.

61) 강동국, 앞의 글, 403쪽.

자신이 독창적으로 고안한 것이라기보다는⁶²⁾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많은 지식인과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논의되어 왔으며 또 논의되고 있었던 제안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즉 그것은 동아시아의 지적 공간을 떠돌아다니면서 안중근 자신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에 의한 비평과 보완과 전유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동아시아 공동의 지적 자산이자 제안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⁶³⁾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⁶⁴⁾ 국제평화회의의 조직과 국제평화군의 창설에 대해서는 일찍이 《한성순보》가 1883년 12월 20일자 「鎔兵議」에서 세계정부와 국제평화군의 창설을 언급한 바 있다. 6년 후인 1899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독립신문》(7월 22일자)은 「평화론」이라는 논설을 통해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군대를 창설하고 북경에서 만국평화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⁶⁵⁾ 공동 개발 은행의 설립과 공동 화폐의 발행에 대해서는 1900년에 안경수가 발표한 「일청동맹론」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⁶⁶⁾ 안중근은 동아시아 삼국간의

62) 이들 제안에서 그의 독창성이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동양 삼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을 방문하여 협력을 맹세한다면 세계 민중의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일 것이다. 이 점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현광호(앞의 책, 180쪽)는 세계 민중의 신용을 중시하는 대목은 다른 구상에 비해 더욱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신운용(앞의 글, 505쪽)은 안중근이 세계 각국의 지지와 로마 교황의 공인을 구했다는 점에서 인종론에만 집착하여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즉 안중근이 세계의 여론과 로마 교황을 인정한 사실은 그가 서양을 침략 세력으로 동양을 평화세력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63) 1926년 7-8월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개최된 아시아민족회의에서도 아시아 회관 건설과 아시아 공동의 금융기관과 흥업기관의 설치, 아시아 공동의 언어 연구, 아시아 대학 창설 등이 안건으로 논의되었던 사실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중국의 아세아민족대동맹과 공동 주최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일본의 아시아주의 계열 단체인 전아세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수정당인 정우회에서 발기하는 형식을 통하여 귀족, 중의원 양원 의원과 실업가, 학자, 언론인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김경일, 「아시아연대의 역사적 교훈: 아시아민족회의와 아시아연맹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제96호(제27권 제3호, 2004), 213-220쪽 참조.

64) 김현철 「개화기 한국인의 대외인식과 '동양평화구상」, 『평화연구』 11(2002), 27-28쪽; 현광호, 앞의 글, 178쪽.

65) 《황성신문》도 이듬해인 1900년 12월 8일-26일자의 「외보」에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전권위원이 기명 조인한 '국제분쟁의 평화처리조약'의 전문을 16차에 걸쳐 소개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현광호는 안중근의 동양평화회의가 삼국제후론에서는 볼 수 없는 구상으로 1899년의 만국평화회의와 이를 계기로 대두된 국내의 평화론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본다.

무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상업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상에서 삼국 공영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적 기반의 조성을 제안한 것이었다.⁶⁷⁾

이처럼 비록 그것이 그에게만 귀속되는 독자적인 구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안중근은 이를 바탕으로 한 재해석과 보완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 고유한 평화이론으로 발전시켰다.⁶⁸⁾ 로마교황을 통한 세계 민중의 지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삼국연합군 구상을 통하여 동양 삼국의 청년들로 군단을 편성하여 이들이 상대 국가의 언어를 배우으로써 우방이나 형제의 관념을 갖는 진정한 연대의 장을 모색한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⁶⁹⁾ 이러한 점에서 그의 실천 방안들은 국수주의적 지향에 편승한 안경수의 논의나 20년대 일본의 국수주의 단체인 대아세아협회의 제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자신의 죽음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별다른 자료도 구할 수 없는 옥중 생활에서 히라이시 법원장과의 면담 대화를 통하여 이처럼 체계적인 논의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정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독립과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를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이를 체계화하고자 한 그의 노력과 시도는 아무리

66) 이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국의 공동 은행을 설립하거나 상업에서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합자 등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상업동맹에 대한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안경수, 『일청한동맹론』, 『일본인』 제121호(1900), 23-25쪽 및 123호(1900), 25-26쪽. 초대 독립협회 회장을 한 그는 한국인으로서 삼국제휴의 논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 인물로 평가된다. 일본의 국수주의 잡지인 『일본인』에 기고한 이 글에서 그는 군사동맹과 상업동맹을 기반으로 삼국의 '국민적 동맹'을 제안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침략주의로서 아시아주의에 편승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조재곤, 앞의 글 169-171쪽.

67) 동아시아 삼국의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의 확대와 신용 발달은 금융시장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를 배경으로 당시의 지식인들은 삼국의 경제수준이 함께 진보해야 삼국 공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김윤희, 「대한제국기 서울지역 금융시장의 변동과 상업 발전 - 대한천일은행 및 대자본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2), 177쪽, 현광호, 앞의 글, 180쪽에서 재인용. 신운용(앞의 글, 504쪽)은 공동은행을 설립하지는 안중근의 제안은 일본의 동양침략 원인이 경제적 궁핍에 있다고 본 안중근의 진단에 따른 것으로 안경수의 『일청한동맹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68)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연구실에서 동양평화론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김정명은 당시 31세의 청년이 이 정도로 세계정세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놀랐다고 회고한다. 20세기 초두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의 각 지구에 관하여 실로 예리한 관찰을 하면서 조국의 위기를 염려하는 뛰어난 역사관에 의해 뒷받침된 평화론이라는 것이다. 市川正明, 앞의 책, 17쪽.

69) 국가보훈처·광복회, 앞의 책, 56쪽; 현광호, 앞의 글, 179쪽; 신운용, 앞의 글, 505쪽.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V. 맺음말: 열린 민족주의와 보편주의를 향하여

주지하듯이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의 의거 자체는 한국인 안중근이 “중국 영토 내의 러시아 행정력이 미치는 철도 구역 내에서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⁷⁰⁾ 하얼빈은 중국의 영토이지만 당시 러시아는 청국과의 조약을 통하여 이른바 동청철도의 부설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하얼빈 역 구내는 러시아의 관할지역이었다.⁷¹⁾ 이처럼 중국의 영토에서 러시아가 관할권을 갖는 지역에서 한국인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안중근의 의거는 필연적으로 동아시아라는 맥락에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안중근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의 ‘권한 문제’, 즉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일본인 관선 변호인 가마타 세이지(鎌田正治) 변호사는 1910년 2월 12일 오전 9시 반에 열린 제5회 공판에서 이 사건이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범죄’라는 점에서 한청조약이나 한일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외교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대항할 뿐이므로 피고인은 한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일본제국의 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국의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한국의 형법에는 이국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벌칙 조항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⁷²⁾

흥미로운 것은 이 변론에 대한 안중근의 반응이다. 자신을 옹호하는 이 변론에 대하여 그는 의외로 자신은 “이것을 부당하고 어리석은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오늘날 모든 인간은 법에 따라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죽이고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즉 동기가 어찌

70) 박 보리스, 앞의 책, 110쪽.

71) 러청조약의 규정에 따라 동철 철도의 종업원은 러시아인과 청국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철도에 부속되는 시설은 모두 러시아 측이 관리하고, 역무원이나 경비병 역시 러시아인이었다. 사키 류조, 이성범 역, 『안중근과 이토오 히로부미』(제이앤씨, 2003), 91쪽.

72) 나카노, 앞의 책, 66쪽; 사키, 위의 책, 263쪽.

되었던 자신은 사람을 죽였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자신이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안중근은 “그것은 간단하다. 나는 한국의 의병으로서 적국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국공법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한다.⁷³⁾

여기에서 안중근이 동아시아의 특정 국가가 아닌 만국공법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은 보편주의적 세계주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보편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그의 열린 민족주의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은 그의 동아시아 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이 시기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에 의한 동아시아 구상의 대부분이 입으로는 동아시아의 연대와 단결을 외치면서도 따져 들어가면 자신의 민족과 국가에 한정된 폐쇄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동양평화론은 보편 세계로의 지향을 가진 열린 민족주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안중근은 이 시기 일반적으로 말해지던 아시아주의와 동양평화의 일정한 부정적 속성들을 반영하는 시대적 제약에 의해 구속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동아시아 구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73) 나카노는 이에 대하여 “한청통상조약에 기초한 가마다 변호사의 논지를 안중근이 거부한 것은 ‘죽인 자는 죽어야 한다’는 굳건한 그리스도교 윤리관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만국공법의 재판을 요구하면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의 부당한 재판을 비판한 안중근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평하고 있다. 나카노, 위의 책, 72-73쪽.

참 고 문 헌

- 강동국,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기념사회협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 경인문화사, 2009, 399-439쪽.
- 국가보훈처·광복회, 「청취서」. 『21세기와 동양평화론』, 1996, 51-71쪽.
- 김경일, 「아시아연대의 역사적 교훈: 아시아민족회의와 아시아연맹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제96호(제27권 제3호), 2004, 211-247쪽.
- 김경일·강창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8호, 2000, 269-332쪽.
- 김민환, 「동양3국공영론」.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 나남, 1988, 64-78쪽.
- 김삼웅, 『안중근 평전』. 시대의 창, 2009.
- 김영호, 「동북아 중심국가론의 기대와 우려 -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판 신마셜 플랜을 촉구하며」. 『시민과 세계』 제3호, 참여사회연구소, 2003, 259-273쪽.
- 김윤희, 「대한제국기 서울지역 금융시장의 변동과 상업 발전 - 대한천일은행 및 대자본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김현철 「개화기 한국인의 대외인식과 '동양평화구상」. 『평화연구』 11, 2002, 5-34쪽.
- 림종상,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 자음과 모음, 2006.
- 박영재, 「근대 일본의 한국 인식」. 역사학회 편, 『일본의 침략정책사 연구』, 일조각, 1984, 81-111쪽.
- 박은식, 『한국통사』. 상해: 대동편집국, 1915.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 비평사, 2000.
- 신운용, 「안중근 의거의 사상적 배경」. 안중근의사기념사회협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 경인문화사, 2009, 233-282쪽.
-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연구와 실천을 위한 방안」. 안중근의사기념사회협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 경인문화사, 2009, 497-510쪽.
-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이등박문의 '극동평화론」. 안중근의사기념사회협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 경인문화사, 2009, 511-556쪽.
- 신체호,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8일 및 10일자,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 지성사, 1997, 216-220쪽.
- 안경수, 「일청한동맹론」. 『일본인』 제121호, 23-25쪽 및 123호, 23-26쪽, 1900.
- 안중근, 「동양평화론」.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 지성사, 1997, 205-215쪽.

- 嚴安生, 『日本留學精神史 - 近代中國知識人の軌跡』. 岩波書店, 1991(원안성 저, 한영혜 역,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 - 근대 중국 지식인의 일본 유학』, 일조각, 2005).
- 윤경로, 「사상가 안중근의 생애와 활동」.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291-338쪽.
- 윤병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기념사회협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1』, 경인문화사, 2009, 381-398쪽.
- 이광린, 「개화기 한국인의 아시아연대론」. 『한국사연구』 제61·62집, 1988, 285-299쪽.
- 이기웅 편,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 열화당, 2000.
- 이승원, 「전장의 시물라크르: 박영희의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9호, 2007, 223-249쪽.
- 이인직, 『혈의 누(의)』. 을유문화사, 1969.
- 조재근, 「한말 조선 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제휴 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 제37호, 2000, 149-174쪽.
- 주요한, 『안도산 전』. 삼중당, 1978.
- 최서면, 『새로 쓴 안중근 의사』. 집문당, 1994.
- 팔봉, 「대아세아주의와 김육균 선생」. 『조광』 1941년 11월호, 64-73쪽.
- 한기형, 「근대 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 - 『청춘』과 『개벽』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50집, 2005, 167-198쪽.
- 함동주, 「명치기 아시아주의의 ‘아시아’상」. 『일본역사연구』 제5집, 1997, 65-86쪽.
- 현광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제46권 3호, 2003, 155-261쪽.
- 나카노 토무, 『동양평화의 사도 안중근』. 하소, 1995(中野泰雄, 『日韓關係の原像』, 東京: 亞紀書房, 1984).
- 사이토 다이켄, 이송은 역, 『내 마음의 안중근』. 집사재, 2002(齊藤泰彦, 『わが心の安重根』, 東京: 五月書房, 1994).
- 사키 류조, 이성범 역, 『안중근과 이토오 히로부미』. 제이앤씨, 2003(佐木隆三, 『伊藤博文と安重根』, 東京: 文藝春秋, 1996).
- 市川正明, 『安重根と朝鮮獨立運動の源流』. 原書房, 2005.
- 박 보리스, 신운용, 이병조 역, 『하얼빈 역의 보복 -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안중근의 충성』. 채륜, 2009(Пак Б. Д. (Борис Дмитриевич), Возмездие на харбинском вокзале. Документаль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국 문 요 약

안중근에 관한 주류적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이 글은 안중근의 사상에서 민족주의와 동아시아의 두 가지 개념에 주목한다. 안중근의 민족주의와 동양평화론을 일국사의 틀에서 이해해 온 학계의 편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안중근이 쓴 텍스트와 기존 연구들에 대한 징후적 해독(symptomatic reading)을 통하여 그에 대해 형성되어 온 기존의 이해를 해체하는 한편, 이 두 주제에 관한 안중근 자신의 생각과 비전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탐색한다. 원초적 민족주의의 원형들을 안중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안중근의 사후 형성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래된 바로서의 폐쇄적 민족주의 상은 안중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국가와 민족의 벽을 초월하는 열린 민족주의의 자세를 죽을 때까지 잃지 않았다. 이러한 열린 민족주의는 그의 동아시아 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시기 아시아주의와 인종주의 일반의 일정한 부정적 속성들을 반영하는 시대적 제약에 의해 구속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동아시아 인식과 동양평화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투고일 2009. 10. 14.

수정일 2009. 12. 2.

게재 확정일 2009. 12. 7.

주제어(keyword) 안중근(Ahn Jung-Keun), 민족주의(nationalism), 동양평화론(theory of Eastern Peace), 아시아주의(Asianism), 동아시아(East Asia), 세계평화(World Peace)